

朝鮮刊《黃山谷集》考

朝鮮時代刊行中國文學關係書研究 其五

金 學 主*

一. 《山谷集》概況

北宋 詩人 黃庭堅(號, 山谷老人, 1045~1105)의 詩文集은 《內集》·《外集》으로 구분되어 전한다. 史容의 〈外集注序〉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黃庭堅 스스로 한 것이라하는데 後世의 編者들도 이를 계속 따랐다. 다만 黃庭堅의 손자인 黃籛이 편찬하였다는 《別集》은 《內集》·《外集》과 별도로 누락된 遺文을 보충하였다는 의미로서 命名된 것이다.

《四庫全書總目》集部3 別集類에는 대표적인 黃庭堅의 詩文集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의 두 종류이다.

① 《山谷內集》30卷, 《外集》14卷, 《別集》20卷, 《詞》1卷, 《簡尺》2卷, 《年譜》30卷. (安徽巡撫探進本)

② 《山谷內集注》20卷, 《外集注》17卷 (兩淮鹽政探進本), 《別集注》2卷 (編修翁方綱家藏本).

①은 注가 없는 《全集》本으로 《內·外·別集》이 모두 각각 詩文들을 모아 실고 있다. 日本의 內閣文庫에는 明 嘉靖 6年(1527) 刊本이 收藏되어 있는데 끝머리에 附錄으로 黃庭堅의 아버지 黃庶의 文集인 《靑社黃先生伐檀集》 2卷이 더 붙어 있는 집만이 다르다. 이에 의하면 《正集》은 甥姪인 洪災이 편집하였고, 《外集》은 宋대의 李彤이 편찬하였으며, 《別集》과 《年譜》는 손자인 黃籛이 편찬하였고, 《伐檀集》만은 明代의 周季鳳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서울대 인문대 중문학과 교수

②는 詩만을 따로 모아서 注를 단 詩集注本이다. 그러나 《內·外·別集》중의 詩가 그대로 《內集注·外集注·別集注》로 된 것이 아니라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編次가 새로 구성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다음 章에서 자세히 고찰하려 한다.

《文獻通考》卷244 經籍考에는 《四庫全書總目》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書目들이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 ① 《黃魯直豫章集》30卷, 《別集》14卷.
- ② 《豫章別集》1卷.
- ③ 《山谷集》11卷, 《外集》11卷, 《別集》2卷.
- ④ 《山谷編年詩集》30卷, 《年譜》2卷.
- ⑤ 《註黃山谷詩》20卷, 《註後山詩》6卷.

①은 卷數를 통례 볼 때 《四庫全書》全集本の 《內集》30卷, 《外集》14卷과 일치하는데, 《外集》이 《別集》으로 되어 있는 것이 相異하다. 《山谷集》은 보통 《內集》이 《正集》으로 여겨져 왔으나 《豫章集》은 《內集》30卷을 가리키고 《別集》은 《外集》14卷을 가리킬 가능성이 짙다. ②의 《別集》1卷은 대개 上·下 2卷으로 구성된 《別集》을 1卷으로 改編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③의 《山谷集》11卷, 《外集》11卷은 卷數에 있어서 꼭 생경하다. 陳振孫의 해설에 따르면, 江西에서 刻印한 것으로 《豫章前·後集》중의 詩를 모아 놓은 것이며 《別集》은 慶元(1195~1200)間에 莆田 黃汝嘉가 增刻한 것이라고 한다.¹⁾ ④의 《編年詩集》30卷은 黃黼이 《別集》 및 平生의 詩를 수집하여 세월 順次에 따라 編錄한 것이다 하였다. ⑤의 경우는 黃庭堅과 陳師道 詩集을 合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유력한 증거로서 黃庭堅의 詩集注本에 거의 빠짐 없이 수록된 〈黃陳詩集注序〉를 들 수 있다.²⁾

1) 陳氏曰, 黃庭堅魯直撰, 江西所刻. 詩派, 即豫章前後集中詩也. 別集者, 慶元中莆田黃汝嘉增刻.

2) 朝鮮刊本 《詩集注》는 거의 전부가 〈黃陳詩集注序〉라는 題下에 任淵과 許尹의 序를 실고 있는데 그 내용은 宋詩의 重要人物인 黃庭堅과 陳師道の 詩

《南昌府志》卷62에는 黃庭堅의 作品集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① 《內集》 20卷, 《外集》 17卷, 《別集》 2卷.
- ② 《刀筆》 20卷, ③ 《焦尾集》 卷10, 《敝帚集》 10卷. ④ 《山谷詞》 1卷.
- ⑤ 《修水集》 10卷. ⑥ 《師友淵源錄》 2卷. ⑦ 《山谷全書》 81卷.
- ⑧ 《宜州家乘》 2卷.

①은 卷數가 《四庫全書總目》에 수록된 《詩集注》本과 일치하므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의 《刀筆》은 우리나라 朝鮮刊本에 《山谷老人刀筆》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編者가 未詳이며 〈山谷老人傳〉을 卷首에 두고 〈上東坡先生〉으로부터 시작되는 書簡文類를 수록하고 있다.³⁾ ③의 《焦尾集》·《敝帚集》은 《四庫全書提要》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黃庭堅이 中年에 자신이 지은 1,000여 首의 詩 중에서 삼분지이를 태워 버리고 300여 首 정도만을 간추려 간행한 것이라 한다. 곧 黃庭堅 生存時에 刊行된 ‘自定本’인 셈인데,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豫章集》을 《山谷內集》이 바로 이 自定本을 취한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어 뒤에 논하기로 한다.

④의 《山谷詞》는 編者 未詳이며 ⑤의 《修水集》역시 編者를 알 수 없으나 任淵의 《內集注》에 “右三詩, 見於《修水集》, 今附見.”⁴⁾이란 말이 있으니 일찌기 나왔던 黃庭堅의 또 다른 詩文集인듯 하다. 《師友淵源錄》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⑦의 《山谷全書》 81卷도 의문이 가는 바이다. 《四庫全書》의 《全集》本은 도합 94卷이니 卷數가 다르고 《詩集注》本도 합해 봐야 39卷에 그치니 역시 맞지 않는다. 아마 이들과 또 다른 版本의 全集이 있었던듯 하다. ⑧의 《宜州家乘》은 黃庭堅의 마지막 저술이다. ‘家乘’은 곧 ‘家史’로써 晩年에 家內的 細細한 일들을 기록한 日記라 할 수 있다.

에 注를 달았다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詩를 合刻한 版本이 널리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3) 日本 東洋文庫에는 明刊本 《山谷老人刀筆》 20卷이 所藏되어 있다.

4) 第17卷 〈又借前韻見意〉詩.

이 밖에 《宋史》藝文志에는 《黃庭堅集》 30卷, 《樂府》 2卷, 《外集》 14卷, 《書尺》 15卷이 수록되어 있는데, 《樂府》는 詞集이며, 《書尺》은 그의 書簡集이다.

이상으로 각 典籍에 수록된 黃庭堅의 詩文集을 대략 살펴 보았다. 黃庭堅이 生存할 당시부터 다양한 詩文集이 나왔으나 중간에 亡失된 것도 적지 않은 듯 하다. 任淵이 《山谷內集》에 注할 당시(1111年)만해도 여러 版本이 나와 있어 “《豫章前集》”, “彭山黃氏有山谷手寫”, “近鄰張淵方回家本”, “豫家所藏舊本”, “宗室趙子湜彥清家有此鈔本”, “舊本”, “蜀中舊本”, “《外集》”, “《脩水集》” 등 다양한 자료가 注에 인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善한 版本이 宋代에서 清代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게 流傳되고 있었던 듯 하다.

지금 세상에는 宋版이 三種 전한다.

1) 《豫章先生文集》 30卷, 《外集》 17卷. 日本內閣文庫 所藏本으로, 南宋 초기에 나온 刊本으로 善版임에 틀림 없으나, 闕卷이 많아 나머지는 缺치를 합쳐 모두 17卷의 분량이라 한다.

2) 《豫章黃先生文集》 30卷, 《四部叢刊》所收本으로 內閣文庫本과 系統이 다르나 역시 좋은 版本의 하나다.

3) 《豫章黃先生文集》 30卷, 《外集》 14卷. 《四部叢刊》本과 같은 系列의 版本인데, 闕卷이 많다. 日本 天理大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이 밖에도 元刊本으로 《山谷外集詩注》 14卷 宋 史容撰이 《四部叢刊續編》에 影印되어 있고, 明刊本으로는 앞에 든 嘉靖刊本 이외에 明 方沅 등이 校刻한 萬曆刊 《重刻黃文節山谷先生文集》 30卷, 《外集》 14卷, 《別集》 20卷, 《年譜》 10卷(日本 內閣文庫 藏)이 있다.⁵⁾

그러나 현재 전하는 版本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善本으로 꼽을만한 淸刊本으로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⁶⁾

5) 이상 《漢詩大系》 18 《黃山谷》(日本 集英社 刊)의 倉田淳之助 解題 依據.

6) 劉維崇 著 《黃庭堅評傳》(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 p.303 參照.

《宋黃山谷先生正集》32卷, 《外集》24卷, 《別集》19卷, 《卷首》4卷.

——清 乾隆乙酉30年(1765) 江西寧州 緝香堂 重刊本

《黃山谷內集》20卷, 《外集》17卷, 《別集》2卷.

——清 光緒甲申10年(1884) 宜都 楊守敬廣文書樓本

한편 현재 臺灣에서 單行本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中華書局刊 《山谷全集》(全 2冊), 世界書局刊 《黃山谷詩集注》, 藝文印書館刊 《山谷詩集注》 등이 있는데, 모두 《詩集注》本으로 《內集注》20卷, 《外集注》17卷, 《別集注》2卷으로 구성된 것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現代로 올수록 뜻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詩集注》本이 주종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朝鮮刊本의 경우에도 비슷하여 대부분이 《詩集注》本에 치우쳐 있다.

二. 《全集》本과 《詩集註》本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黃庭堅의 詩文集으로는 《全集》本과 《詩集註》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 양자간의 異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한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다음과 같이 黃庭堅의 《全集》本인 《內集》30卷, 《外集》14卷, 《別集》20卷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黃庭堅이 스스로 刪定한 것은 모두 이미 남아 있지 않다. 남아 있는 것으로는 첫째 《內集》이 있는데, 黃庭堅의 甥姪인 洪炎이 편찬하였으며 마로 黃庭堅이 手定한 《內篇》으로 이른 바 退聽堂本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外集》은 李彤이 편찬한 것으로 이른 바 邱潛藏本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別集》으로 黃芻이 편찬한 것이며 이른 바 內閣鈔出宋蜀人所獻本이라는 것이다. 《內集》은 建炎 2年(1128)에 편찬하였고, 《別集》은 淳熙 9年(1182)에 편찬하였으며, 《年譜》는 慶元 5年(1199)에 편찬하였다. ……오직 李彤이 편찬한 《外集》만은 편찬한 年月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⁷⁾

7) “…然庭堅所自定者, 皆已不存. 其存者, 一曰內集, 庭堅之甥洪炎所編, 即庭堅手定之內篇, 所謂退聽堂本者也. 一曰外集, 李彤所編, 所謂邱潛藏本者也. 一曰別集, 即芻所編, 所謂內閣鈔出宋蜀人所獻本者也. 內集編於建炎2年, 別集編於淳熙9年, 年譜則編於慶元5年. …獨李彤之編外集, 未著年月.”

《外集》도 卷14 〈送鄧愼思歸長沙詩〉에서 愼字가 空格으로 있는데, 註에서는 그 글자가 今上의 御名이어서 諱한 것으로 보고 孝宗時(1163~1189)에 편찬한 것이라 推定하고 있기는 하다.

이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書名	編者	又名	刊年
《內集》30卷	洪 炎	退聽堂本	建炎 2年 (1128)
《外集》14卷	李 彤	邱濟藏本	孝宗時? (1163~1189)
《別集》20卷	黃 營	宋蜀人所獻本	淳熙 9年 (1182)

이 중 《內集》30卷을 소위 ‘退聽堂本’이라 하는 것에 대해 《四庫全書總目》《詩集註》本の 〈提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黃營이 편찬한 庭堅의 《年譜》에 말하기를…山谷은 史事로써 陳留에 待罪하였는데 우연히 스스로 退聽堂詩를 편찬하였는데, 처음엔 젊었을 때의 작품을 버릴 생각이 없었다. 直孺 胡少汲이 建炎初에 洪井⁸⁾을 거느리고 山谷의 詩文을 분류하여 《豫章集》을 만들었는데, 汝陽의 朱敦儒山房의 李彤에게 명하여 편집토록 하였으나, 洪炎(字 玉父)이 그 일을 전담하여 마침내 ‘退聽’으로 끊는 기질을 삼았다.”⁹⁾

黃庭堅이 史事로써 陳留에 待罪한 것은 紹聖元年(1095) 51歲 때의 일로 《神宗實錄》이 劾實함을 잃었다는 근거 없는 모함에 연루되어서이다. 이로 하여 紹聖 2年 黔州로 貶謫 당하게 되어 元符元年(1098)까지 3년여간을 그 곳에서 보내었는데 劉維崇의 《黃庭堅評傳》¹⁰⁾에 의하면 당시엔 寫作에 몹시 나태하여 詩의 體律을 잊을 정도였다 한다. 그렇다고 해서

8) 洪井은 뒤에 나오는 洪炎의 아우인듯 하다. 《文獻通考》卷244 經籍考의 《山谷編年詩集》30卷, 《年譜》2卷 下에는 “山谷詩文, 其甥洪氏兄弟所編”이란 말이 보인다.

9) “黃營所編庭堅年譜云…山谷以史事待罪陳留. 偶自編退聽堂詩, 初無意去少作. 胡直孺少汲, 建炎初帥洪井類山谷詩文爲豫章集, 命汝陽朱敦儒山房李彤編集, 而洪炎玉父專其事, 遂以退聽爲斷.”

10) 劉維崇, 上揭書 p. 80.

詩集을 편찬하지 않았으리란 법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退聽’이란 말의 뜻이다. 앞에서는 “晩年에 待罪할 때 退聽堂詩를 편찬하였다” 하였는데, 뒤에서는 “退聽을 끊는 기점으로 잡았다” 하였으니 마치 晩年 이후의 作을 모은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中年期の 作品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任淵의 《內集詩註》第1卷〈古詩二首上蘇子瞻〉詩의 注에는 ‘退聽’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建炎間(1127~1130)에 山谷의 甥姪 洪炎이 그 외삼촌의 文集을 편찬하였는데 退聽堂으로부터 끊어 시작하였다. 退聽 이전의 것은 대개 다시 취하지 않았으나, 오직 〈古風〉 2篇만은 취하여 詩集의 첫머리에 놓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魯直이 蘇公의 知遇를 받은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이라고 하였다. 이에 그 말을 따른다. 退聽堂은 汴京 醜池寺의 남쪽에 있다. 山谷이 館職을 지낼 때 이 곳에 붓과 벼루를 기탁하였다.”¹¹⁾

退聽은 汴京에 있는 堂名이며 이 곳에 筆墨을 기탁했을 때, 곧 館職이 있을 때부터의 作品을 수록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汴京은 당시의 首都이니 黃庭堅이 서울에 머물 때의 作이 된다. 黃庭堅은 嘉祐 8年(1063) 19歲 때 서울에 와서 科擧를 치렀으나 낙방하고 몇 년 뒤 禮部試에 합격하여 饒州餘干主簿·汝州葉縣尉 등을 지낸 다음 熙寧 5年(1072) 28歲 때 北京國子監教授가 되어 元豐 3年(1080) 吏部로 官이 바뀌어 太和로 부임하게 될 때까지 8년여간을 역임하였다. 太和에서 5年정도 지낸 후 元豐 8年(1085) 神宗이 崩御하고 哲宗이 即位하자 秘書省校書郎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 오게 되는데 黃耑의 年譜에서는 “以秘書省校書郎召入館”이라 표현하고 있다. ‘入館’이란 ‘館職’에 들어 갔다는 말일 터인데 宋制에 의하면 直史館·昭文館·集賢院 등을 모두 館職으로 불렀다 한다. 《內集》의 詩들이 대개 元豐, 元祐年間の 作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11) “建炎中山谷之甥洪炎玉父編其舅文集，斷自退聽堂始。退聽以前，蓋不復取，獨取古風二篇冠詩之首。且云，以見魯直受知於蘇公有所自也。今從之。退聽堂在汴京醜池寺南。山谷作館職，寓筆硯於此。”

退聽堂本이란 黃庭堅이 元豐 8年 秘書省校書郎이 되어 館職에 머물게 되었을 때 筆墨을 기탁했던 ‘退聽堂’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봄이 옳겠다. 《文獻通考》卷244 經籍考의 《山谷編年詩集》30卷 《年譜》2卷에 대한 陳振孫의 해설에서는 “山谷의 詩文은 그의 생질 洪氏兄弟가 편찬한 것인데 進德堂 이후로부터 잘랐다. (山谷詩文, 其甥洪氏兄弟所編, 斷自進德堂以後)”고 하였다. ‘進德堂’은 ‘退聽堂’의 誤記일 것이나 ‘退聽’이 堂名임을 시사해 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하겠다.

참고로 《四庫全書》에 수록된 《內集》30卷의 篇次를 밝히면 아래와 같다.

卷1：賦，楚詞，卷2～卷8：古詩，卷9～卷11：律詩，卷12：六言詩，卷13：銘，卷14：贊，卷15：頌，卷16：序，卷17, 18：記，卷19：書，卷20：表，卷21：文，卷22, 23：墓誌銘，卷24：碑銘，卷25～30：題跋.

《外集》14卷은 《四庫總目提要》《全集》本에서는 李彤이 편찬하였다 하였으나 《詩集注》本에서는 또 洪炎의 일과 뒤섞어 말하고 있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가 없다. 다만 任淵이 注할 당시(1111年)에도 이미 《豫章外集》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內集》 못지 않게 이른 시기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外集》의 가치는 內集이 ‘退聽’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作을 刪去해 버렸음에 비해, 刪去해 버린 少年期의 作品 및 晩年期의 作品들을 다시 수집하여 《內集》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는데 있다. 비록 《內集》보다 뒤늦게 나왔지만 作品의 창작 時期를 보면 더 앞서는 것도 있고 더 늦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外集》14卷의 編次는 다음과 같다.

卷1：賦，古詩，卷2～卷5：古詩，卷6，卷7：律詩，卷8：哀詞，墓誌銘，卷9：雜文，卷10：書，雜文，卷11：楚詞，卷12：古詩，卷13，卷14：律詩.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韻文인 賦와 詩가 卷1～卷7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 散文作品이 계속된 후 卷11부터 卷14까지 다시 韻文作品이 수록되었

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四庫總目提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外集》第11卷이하 4卷은 詩가 모두 400여 首 된다. 모두 庭堅이 晩年에 刪去한 것인데 李彤이 덧붙여 넣은 것이다. 이것은 任淵·史容 등 3인이 注한 版本에는 없는 것이다. 庭堅의 詩는 이것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완전해진다.¹²⁾

《別集》20卷 역시 《內集》 및 《外集》의 불완전성을 더욱 보충하기 위하여 나온 것인데 庭堅의 孫인 黃籟가 編하였다. 編次는 卷1이 古詩·律詩·挽詩로 되어있고 卷2의 銘·贊·頌으로부터 卷20의 書簡까지 文章類로 되어 있는데, 특징은 卷13에서 卷20에 이르기까지 7卷에 걸쳐 ‘書簡’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內集》과 《外集》에 결여된 것이니 黃庭堅의 作品을 연구하는데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詩文을 함께 수록한 《全集》본인 《內集》·《外集》·《別集》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 《全集》本에서 後人들이 詩만을 취하여 注를 달았다는 《內集詩注》·《外集詩注》·《別集詩註》는 실상 《內·外別集》의 詩들과 일치하지 못하므로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해설을 더 들어 보기로 한다.

“3集은 모두 詩文을 합하여 함께 편찬한 것인데, 뒷 사람이 註釋하면서 오직 그 詩만을 취한 것이다. 任淵이 註한 《內集》은 洪炎이 편찬한 《內集》이다. 史容이 註한 《外集》은 李彤이 편찬한 것과 次第가 이미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李彤이 《外集》을 편찬한 大意는 그런대로 史容註 第1卷〈溪上吟〉題下에 보인다. 다만 史季溫이 註한 《別集》단은 黃籟가 편찬한 《別集》과 큰 차이가 있으니, 이 경우는 原本과 註本이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¹³⁾

12) “又外集第11卷以下4卷，詩凡四百有奇。皆庭堅晩年刪去，而李彤附載入者。此則任史三註本皆未之有。庭堅之詩，得此而後全。”

13) “三集皆合詩文同編。後人註釋，則惟取其詩。任淵所註之內集，即洪炎所編之內集。史容所註之外集，則與李彤所編，次第已多不同。而李彤編外集之大

실은 《別集注》뿐만이 아니라 《內集注》·《外集注》가 모두 《全集》本에 비해 같지 않은 점이 많다. 우선 《全集》本과 《詩集注》本の 卷數 및 刊年 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全 集 本	詩 集 注 本
《內集》30卷 洪炎編 建炎 2年 (1128)	《內集注》20卷 任淵注 紹興 25年 (1155) ¹⁴⁾
《外集》14卷 李彤編 孝宗時? (1163~1189)	《外集注》17卷 史容注 嘉定元年 (1208) ¹⁵⁾
《別集》20卷 黃耆編 淳熙 9年 (1182)	《別集注》2卷 史季溫注 ?

《內集》30卷 중 詩는 12卷을 차지하는데 그것에 註가 첨부되면서 20卷의 《內集詩注》가 되었고, 《外集》14卷 중 11卷에 달하는 詩에 註가 덧붙여져서 17卷의 《外集詩註》가 되었으며, 《別集》20卷 중 1卷을 차지하는 詩는 註가 첨가되어 上·下 2卷의 《別集詩註》가 된 것이다. 이 《全集》本 속의 詩들이 《詩集》本으로 바뀔때 일어난 編次의 재조정 에 대하여는 《四庫全書》 수록본 《山谷內集詩註》原注의 다음과 같은 一段이 참고가 된다.

“근세에 편찬한 《豫章集》의 詩는 700여편에 달하는데 대체로 山谷이 入館한 뒤 지은 것들이다. 山谷은 일찌기 莊子를 모방하여 그 詩文을 內·外篇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아마 《內篇》일 것이다. 晩年の 精妙함의 극치가 이에 구미되어 있다. 그러나 詮次가 조리있지 못하고 붙이고 떼어 놓음이 다방함을 잃어서, 이제 事件들을 年度에 맞추어 그 篇目を 校正하여 본래의 次第와 같게 하

意, 猶稍見於史註第 1 卷〈溪上吟〉題下. 惟史季溫所註之別集, 則與耆所編別集大有掙拄, 此則原本與註本不可相無者矣.”

14) 紹興 25年은 許尹序가 이루어진 해이고 실제 任淵의 序가 쓰여진 것은 그를 훨씬 앞지른 政和辛卯年(1111年)이다.

15) 嘉定元年 역시 錢文子 序의 해를 따른 것인데, 史容의 序는 그보다 앞서 쓰였을지 모른다.

었다. 그 중 고찰할 수 없는 것은 옛 순서를 따르거나 혹은 비슷한 것끼리 상종케 하였다. 詩에는 각각 注를 달아 나누어 20卷으로 하였다.¹⁶⁾

《內集》속의 詩는 725篇이고 《內集注》의 作品은 714篇이니 篇數는 대강 비슷하나, 《內集》의 詩가 作詩年度와 상관없이 ‘古詩’·‘律詩’·‘六言詩’ 등 詩體別로 분류되었음에 비해 《內集注》는 각 版本과 자료의 高證을 통해 가능한 한 원래의 作詩年度 순으로 배열해 놓고 있다. 《詩集注》本이 刊行의 主流를 이루면서 詩體別로 분류된 《全集》本은 소홀히 간주되는 감이 있으나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분류를 한 것이므로 作家研究에 있어서는 함께 참고해야만 할 것이다.

《外集注》역시 史容에 의하여 《外集》중의 詩가 編年體로 재편성되었는데, 錢文子の 〈鄕室史氏注山谷外集詩序〉에 의하면 史容은 蜀 靑衣人으로 號가 鄕室居士이며 당시 나이가 칠순임에도 心身이 몹시 건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史容의 自序에는 《外集》이 바로 《焦尾》·《弊帚》의 詩文이라는 말이 보인다. 黃庭堅은 元豐 3年(1080) 36歲 때 吉州 太和縣으로 부임하면서 도중에 방문한 벗들에게 自作集을 보여주고 好評을 받았는데,¹⁷⁾ 이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太和로 부임한 것은 元豐庚申年의 일이다. 그리고 《焦尾》·《弊帚》는 곧 《外集》詩文이다. 그가 당시 사람들에게 推崇받은 바가 이와 같았다. 建炎間에山谷의 외조카 洪炎(字 玉父)이 胡少汲을 위하여 《豫章集》을 편찬하였는데, 오직 元祐間 入館한 뒤 지은 것들만을 취하였으므로 필히 의거할만 하지 못하다 할 바가 있다. 이것이 續註가 부득이한 까닭이다.¹⁸⁾

16) 近世所編豫章集詩凡700餘篇，大抵山谷入館後所作。山谷嘗做莊子分其詩文爲內外篇，此蓋內篇也。晚年精妙之極具於此矣。然詮次不倫，離合失當，今以事繫年，校其篇目，各如本第，其不可考者，即從舊次，或以類相從，詩各有注，離爲20卷云。

17) 예를 들면 秦少游·簡參寥 등으로서 《弊帚》·《焦尾》 兩編에 대해 ‘高古’ ‘絕妙’하다는 칭찬을 하였다.

18) “赴太和，蓋元豐庚申歲，而焦尾·弊帚，即外集詩文也。其爲時輩所推如此。建炎間山谷之甥洪玉父爲胡少汲編豫章集，獨取元祐入館後所作，蓋必有謂未可據依。此續註之所不得已也。”

《焦尾》·《弊帚》集이 바로 《外集》이라면 현재로선 이쯤만 전하는 두文集도 실상은 失傳된 게 아니게 된다. 黃庭堅이 中年期和 晩年期의 두차례에 걸쳐 文集을 自定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고 《焦尾集》·《弊帚集》이 먼저, 그리고 소위 《退聽堂本》이 뒤에 나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양자가 모두 《內·外集》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前者가 《外集》이고 後者가 《內集》이냐 하는 점인데 《四庫全書總目提要》나 任淵의 《內集詩注》 등을 보면 退聽 以後作을 수록한 《退聽堂本》을 모두 《內集》으로 지칭하고 있으니 後者가 《內集》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提要〉에는 또 中年期에 《焦尾》·《弊帚》를 내고 晩년에 復刊을 編定하였다는 말이 나오니 晩년에 나온 復刊이 소위 《退聽堂本》이라면 그 前身이 《焦尾》·《弊帚》集인 것이 되어버린다. 명칭으로 보아서 혹시 《焦尾》가 《內集》, 《弊帚》가 《外集》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드나¹⁹⁾ 史容이 〈序〉를 쓴 시기가 黃庭堅의 死後로부터 백여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때이니 〈提要〉의 說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을듯 하다. 어떻든 그의 말대로라면 《外集》은 곧 당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焦尾》·《弊帚》集의 詩文을 실은 것이니 그것에서 詩만을 간추려 注한 것이 《外集詩注》인 것이다. 곧 《內集》에 못지 않게 훌륭한 作品들이 수록된 셈인데 실제 作品數를 보아도 667首나 되어 《內集》과 비중이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內集》만이 正集으로 인식되고 존중받아서 任淵의 《內集詩注》가 나온 뒤 50여년이 지나도록 《外集》에는 注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 錢文子의 〈外集注序〉에는 任淵 외에도 《內集》에 注했던 사람으로서 ‘史會’란 人物이 거론되어 있지만 《外集》에 注한 사람은 史容 이외에는 없는듯 하다.²⁰⁾

19) ‘焦尾’란 명칭은 《外集詩注》 卷4 〈次韻師厚答馬著作屢贈詩〉 注에도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後漢》蔡邕傳 …吳人有燒桐以爨者，邕聞火烈之聲，知其良木，因請而裁爲琴，果有美音，而其尾猶焦，故時人名焦尾琴。

20) 錢文子 〈蕪室史氏註山谷外集詩序〉…其詩集已有任淵，史會更注之矣。而公所自編謂之外集者，猶不易通，史公儀甫(=史容)遂繼而爲之注。

그런데 우리나라 朝鮮의 刊本 중에는 史容의 《外集詩注》 17卷을 《全集》본인 《外集》 14卷의 次第에 따라 潤色한듯 한 刊本이 있어 주목된다. 殘缺本으로서 第2卷・第3卷만이 남아 있지만 수록 作品 및 次序가 14卷本과 일치하므로 그 원래 모습은 詩와 文章이 함께 섞인 注本으로 어찌면 文章類 作品에도 注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四章에서 세밀히 고찰하기로 한다.

《別集詩注》 2卷은 보통 上・下卷으로 表記되어 있는데 卷數만 보더라도 《全集》본인 《別集》 20卷과 큰 차이가 있다. 물론 《全集》本 속에 詩는 1卷밖에 없으니 그것만을 두고 본다면 엇비슷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양자간에 수록하고 있는 일치하는 작품이 적어서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 史容의 孫인 史季溫이 注하였는데, 任淵이나 史容의 注本이 編年體로 재구성되었음에 비히 필요할 경우에만 간단히 年度를 추정해 놓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록된 作品은 첫 首〈濂溪詩〉에서 끝 首〈芭蕉〉에 이르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刊本 중에는 간혹 끝의 10首가 〈和柳子玉官舍 10首〉에 포함되므로 目錄에서 빠진 것도 있다.

三. 朝鮮刊《山谷集》의 種類

이상의 《山谷集》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朝鮮시대에 刊行된 《山谷集》과 中國刊本과의 比較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각 大學 및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朝鮮刊《山谷集》의 종류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서울大 奎章閣 所藏本

書名	內容	刊年	板式	比考
① 《山谷內集詩註》	20卷(卷15~18缺)	未詳	木板	石室書院印
② 《山谷內集詩註》	20卷(卷9~12外缺)	"	木活字	
③ 《內谷別集詩註目錄》	<山谷別集詩註目錄> <山谷外集詩註目錄>	"	木板	
④ 《山谷詩集註》	《內集》20卷(卷1~3缺) 《外集》17卷,《別集》2卷	光海君15年(1623)	活字	<內賜記>, <藏書記>存.
⑤ 《山谷詩集註》	《內集》20卷,《外集》17卷(卷2~3缺), 《別集》2卷	未詳	活字	箕城世家 趙景眞印
⑥ 《山谷外集詩註》	17卷		木板	石室書院印
⑦ 《山谷外集詩註》	14卷(卷2~3外缺)		"	想白書屋, 想白文庫 趙昌衍印
⑧ 《山谷外集詩註》	17卷(卷2~3外缺)		"	
⑨ *附: 高麗刊本 《山谷詩集註》	《內集》20卷	공민왕? ~	倣宋本 木活字	安東世家 金光炫印 <馬埒跋>存

2. 高麗大學校 所藏本

書名	內容	刊年	板式	比考
① 《山谷集詩註》	《內集》20卷,《外集》17卷,《別集》2卷	未詳	木板	
② 《山谷集詩註》	《內集》20卷(卷1~6, 10~13缺),《外集》17卷(卷5~7, 11~17缺),《別集》2卷缺.	光海年間(1609~1622)	活字	默容室藏書印.(外4種)
③ 《山谷別集詩註》	2卷 1册(第14册)	未詳	木板	景和堂文庫所藏本
④ 《山谷黃先生大全詩註》	目錄外缺. (內集 20卷 目錄)	"	"	癡菴文庫所藏本 <張元禎序>存.
⑤ 《山谷內集詩註》	20卷(卷16, 12張以外缺)	壬亂前(1592)	"	華山文庫所藏本

⑥ 《山谷內集詩註》	A本：20卷(卷6~7이 의 缺), B本：20卷 (卷4~7, 12~5 이 의 缺)	光海間	木活字	華山文庫所藏本. 德水世家李○仲印
⑦ 《山谷別集詩註》	2卷	未詳	木板	新菴文庫所藏本
⑧ 《山谷內集詩註》	20卷(卷16~20缺)	"	甲寅字 覆刻	晚松文庫所藏本
⑨ 《山谷內集詩註》	20卷(卷12~14外缺)	"	元版 覆刻	"
⑩ 《山谷內集詩註》	20卷(卷7~9外缺)	"	木板	"
⑪ 《山谷外集詩註》	17卷(卷3~5外缺)	未詳 (肅宗時 ?)	元版 覆刻	" 雲盧 三碧堂 ²¹⁾ 印
⑫ 《山谷內集詩註》	《內集》20卷(卷4~20 外缺), 《外集》17 卷(卷1~11, 15~ 17以外缺), 《別集》 2卷缺	光海年間	訓監字	晚松文庫所藏本.
⑬ 《山谷內集詩註》	《內集》20卷(卷6~8, 12~14 以外缺), 《外集》17卷(卷1~ 6, 13~15外缺), 《別集》2卷	"	"	"
⑭ 《山谷內集詩註》	《內集》20卷(卷6~9, 17~20缺), 《外集》 17卷(卷3~6, 9~ 12, 17缺), 《別集》 2卷	"	"	" 密陽世家朴鎮汝印
⑮ 《山谷集詩註》		1506~ 1608	木板	六堂文庫所藏本

3. 啓明大學校 所藏本

書名	內容	刊年	板式	比考
① 《山谷詩集註》	《內集》20卷(卷1~2 外缺)	成宗年間 (1470~ 1494)	木板	

21) 三碧堂은 肅宗時 文人인 玄若昊의 號이므로 肅宗 무렵으로 잡아도 좋을 듯하다.

② 《山谷外集詩註》	17卷(卷12, 13外缺)	未詳		
③ 《山谷集詩註》	《內集》20卷(卷1~20缺), 《外集》17卷(卷1~12缺)	〃	〃	
④ 《山谷黃先生大全詩註》	《內集》20卷(卷5~8, 13~20外缺), 《外集》(卷1~2, 6~17外缺), 《別集》2卷	〃	〃	<張元楨序>存

4. 成均館大學校 所藏本

書名	內容	刊年	板式	比考
① 《山谷集詩註》	《內集》20卷, 《外集》17卷, 《別集》2卷	朝鮮後期	訓監字覆刻	
② 《黃詩全集》	<目錄>, 《內集註》20卷, 《外集註》17卷, 《外集補》4卷, 《別集註》2卷, 《別集補》14卷	未詳	木板	樹經堂錄本後刷 <翁方綱序>存 <謝啓昆跋>存

5.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書名	內容	刊年	板式	比考
① 《山谷內集詩註》(并)《外集》, 《別集》	《內集》20卷, 《外集》17卷, 《別集》2卷	未詳	木板本覆刻	
② 《山谷詩註》	《內集》20卷, 《外集》17卷, 《別集》2卷	〃	活字	淺草文庫
③ 《山谷外集詩註》	17卷(卷9~11 78張以外缺)	朝鮮初期	木板本	
④ 《山谷外集詩註》	17卷			
⑤ 《山谷外集詩註》	17卷(卷11~13 以外缺)	〃	訓鍊都監字	
⑥ 《山谷集》	《內集》20卷(卷2~4缺), 《外集》17卷, 《別集》2卷	〃	木板	
⑦ 《山谷黃先生詩集》	《內集》7册(第6册缺), 《外集》9册, 《別集》1册	〃	影印本	

⑧ 《山谷老人刀筆》	15卷	〃	木板
⑨ 《山谷律》	1冊	〃	寫本

6. 藏書閣 所藏本

書名	內容	刊年	板式	比考
① 《山谷內集詩註》	《內集》20卷, 《外集》17卷, 《別集》2卷	未詳	訓監字覆刻	

이상이 각 大學 및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朝鮮刊 《山谷集》의 種類이다. 殘缺本이 多數를 점하고 있기는 하나 朝鮮時代 《山谷集》의 刊行狀況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 서울大 所藏本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부분의 版本이 《內集詩註》20卷, 《外集詩註》17卷, 《別集詩註》2卷의 形式으로 구성되었음에 비해 ⑦의 《山谷外集詩註》만은 14卷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版本은 殘缺本으로서 目錄도 없이 第2·第3卷만 남아 있지만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全集本》의 作品順次와 버열이 꼭 같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뒤에 中國刊本과 구체적인 비교를 행하고자 한다. 그 밖에 달리 주목되는 점은 끝에 첨부한 高麗刊本이다. 光海君 15年(1622)에 刊行된 ⑤의 刊本만이 〈內賜記〉·〈藏書記〉를 실고 있어 刊年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未詳이지만, ①과 ⑥에 보이는 ‘石室書院’은 宣祖에서 孝宗 間에 걸쳐 生存했던 文臣 金尙憲의 書院이므로 최소한 그가 文科重試에 급제했던 光海君元年(1608) 이후의 刊本일 것이다.

그 밖의 대부분이 朝鮮中期 이후 刊行된 것들인데, 그보다 훨씬 앞서 宋本 木活字를 모방하여 찍은 高麗版本이 나왔었다는 것은 역 印象적이다. 印行者인 金光鉉은 高麗의 文臣으로 恭仁王 1年(1352) 同知密直司事를 거쳐 左藏庫提點이 되었고 使臣으로서 元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다. 그렇다면 그가 印行한 版本은 元나라에 使臣 갔을 때 얻은 宋本을 토대로 찍은 것임이 틀림없다. 이 版本은 현재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다른 刊本이 대개 9行 17字 또는 10行 17字로 한 페이지를 이루고 있음에 비해 8行 16字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다를 뿐 대체로 비슷한 樣式이다. 그리고 《內集》 20卷의 수록작품 目次도 다른 版本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山谷詩集註》本이 《內集》 앞머리에 任淵과 許尹의 序를 놓고 뒷부분에는 아무런 跋文도 없이 卷을 끝내고 있음에 비해 紹定 壬辰年(1232)에 馬埈란 사람이 쓴 跋文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跋文에 대해서 楊守敬은 光緒刊本 跋文의 一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內集》은 日本 古時에 宋本을 翻影한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²²⁾ 앞에는 任淵의 序, 鄱陽 許尹의 序가 있는데 아카 陳后山詩를 합한 序本인 것 같다. 끝에는 紹定壬辰年(1232) 山谷의 孫인 黃埈의 跋이 있다. (이 跋은 각 版本에 모두 없는 것이다.)…《外集》·《別集》은 朝鮮 活字本은 行款이 좀 다른데, 그러나 宋帝의 年號를 지날 때는 모두 空格을 두고 있으니 宋本에 근거한 것이다.”²³⁾

楊守敬은 清 宜都人으로 字가 惺吾이다. 同治年間(1862~1874)에 舉人이 되어 駐日欽使隨員에 充任되었는데 日本에서 수집한 中國古書가 몹시 많았고, 귀국한 뒤에는 黃州府學教授를 지냈다 한다. 그러므로 그가 光緒甲申(1884)年에 刊行한 이 版本은 日本에 체류할 때에 얻은 版本을 토대로 새로이 ‘馬埈’의 跋을 넣어 찍은 것이다. 馬埈의 跋文에서 ‘南之諸孫’이란 말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黃庭堅의 子孫으로 黃이 본래 姓이었으나 宋本에서는 諱하여 ‘馬’로 고쳤던 듯 하다. 楊守敬의 跋文 앞에 ‘馬埈’의 跋文原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高麗刊本의 馬埈跋文과 똑 같은 것이다. 楊守敬이 실명한 日本刊本과 다를 바

22) 日本 南北朝시대에 宋本에 의거 《山谷詩集註》 20卷을 覆刻하여, 日本엔 이 版本이 유행하였고, 뒤에 楊守敬이 中國으로 가져가 光緒年間に 影印하고 또 다른 重影印本도 나오게 되었다 한다.

23) 《內集》爲日本古時翻影宋本。(今日本無罕見) 前有任淵序, 鄱陽許尹序, 蓋合陳后山詩註序本也. 末有紹定壬辰山谷孫黃埈跋.(此跋各本皆無之)…其《外集》·《別集》則朝鮮活字本, 行款稍異, 然過宋帝皆空格之, 原于宋本也.”

없이 〈黃陳詩集註序〉라는 表題 下에 任淵과 許尹의 序를 수록하고 있고 끝의 馬埜跋文이 日本에서 얻었다는 版本과 같은 書體로 쓰여져 있으니 兩者는 결국 동일한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日本에 먼저 流入된 宋本을 우리나라 사람이 얻어서 뒤늦게 찍어낸 것이라고 보기엔 어쩐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다. ‘倣宋本木活字’란 事項이 분명하고 印行者인 金光鉉이 元나라에 使臣갔다 온 사실이 엄연하니 반드시 高麗時代 元에서 얻은 宋本을 모방하여 찍었음에 틀림없고, 이것이 후에 日本에 흘러가 日本版本으로 行世하였음이 틀림 없다. 光緒 26年(1900)에 나온 重刻本에 실린 陳三立의 題辭에서도 이 楊守敬이 日本에서 얻은 祕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高麗版本이 完存하고 있는 이상 是正되어야 할 事項이라 하겠다.

高麗大學校 및 啓明大學校 所藏本에서 주목되는 점은 《山谷黃先生大全詩註》라는 좀 낯설은 版本이다. 이 版本은 앞에 明 弘治 丙辰年(1496)에 쓴 張元禎의 〈序〉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江西詩派 宗主로서의 黃庭堅의 뛰어난 文章力을 칭송하는 것과 莆田 黃仲昭의 家藏本을 底本으로 삼았음을 밝힌 것 등이다. 高大에는 《內集》20卷의 目錄만이 남아 있으나 啓大 所藏本の 卷數를 통해 볼 때 書題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內集》20卷・《外集》17卷・《別集》2卷의 대표적인 《山谷詩集注》本과 同一하다.

이 밖에도 成大 所藏本에는 《黃詩全集》, 國立中央圖書館 藏本에도 몇 가지 特徵을 지닌 版本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에 관한 調査는 다음 機會로 미룬다.

四. 《詩集註》本の 中國刊本과 朝鮮刊本 比較

앞에서 본 朝鮮刊 《山谷集》의 種類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점은 대부분이 《內集詩註》・《外集詩註》・《別集詩註》로 구성된 《詩集註》本이라는 점

이다. 이처럼 《詩集註》本에 편향된 刊行 경향은 中國의 경우보다 훨씬 심하다. 朝鮮刊本の 이러한 경향 때문에 中國刊本과의 비교는 《詩集註》本으로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詩集註》本도 실상은 대부분이 《內集詩註》20卷・《外集詩註》17卷・《別集詩註》2卷의 形式을 준수하고 있어 특별히 비교할만 한 것이 없다. 高麗刊《山谷詩集註》本에 보이는 〈黃鍊詩集註序〉題下의 任淵序와 許尹序, 그리고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全文을 찾아보기 어렵다한 錢文子の 〈外集詩註序〉 등이 거의 每版本에 수록되어 있고, 註者도 任淵(《內集詩註》)・史容(《外集詩註》)・史季溫(《別集詩註》)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누차 언급하였던 14卷本《外集詩註》와 中國刊本(즉 17卷本《外集詩註》)을 비교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서울大奎章閣에 所藏되어 있는 이 14卷本《外集詩註》의 殘缺本에는 序文이나 目錄이 남아 있지 않아서 出版經緯를 알 수 없고 年代도 추정하기 어렵다. 藏書目錄에는 단지 ‘趙昌衍印’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刊年은 알 수가 없다. 그 樣式을 보면 ‘四周雙邊’ 또는 ‘四周單邊’이 대부분인 다른 版本과 달리 ‘上下單邊, 左右雙邊’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나 한 페이지에 10行 17字가 들어간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半葉 즉 한 페이지의 匡郭은 21.8×15.5cm라고 되어 있으나 數種의 版式이 섞여 있어 실제 크기는 들쭉날쭉하다. 版心の 卷數의 表記가 ‘谷外二’・‘谷二’・‘谷外集二’・‘谷二外’ 및 ‘山三’・‘谷三’・‘外山三’・‘谷外三’ 등으로 다양하게 表記된 것으로 보아 印刷가 다른 페이지를 구별짓기 위하여 그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補刻’의 方法으로써 損傷된 부분을 채워넣다보니 ‘外山三’ 같은 語順에 어긋나는 表記까지 동원된 것인듯 싶다. 이처럼 여러 版式이 동원된 것은 그만큼 初刻의 時期가 오래되었음을 反證해 준다.

注文은 本文보다 작은 글씨로 한 行에 두 字씩 들어가 있는데 注者가 밝혀져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17卷本 史容의 註와 거

의 일치하므로 史容註의 再編成이라고 할만 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卷2 <次韻謝外舅病不能拜復官夏雨眠起之什>

中國刊本(17卷本)	朝鮮刊本(14卷本)
<p>「欲從群兒嬉，出語不嫉媚」句 <退之詩>…又不媚笑言，不能伴兒嬉。 <唐魏徵傳>；帝曰…人言徵舉止踈慢，我但見其嫉媚耳。</p>	<p><退之詩>…又不媚笑語，不能伴兒嬉。嫉媚，見上。</p>
<p>「南山雲氣佳，北極晷旒邃」句 《爾雅》…北極謂之北辰。 《禮》…天子冕十，有二旒，前後邃延。 <杜詩>…玉几由來天北極。</p>	<p>《爾雅》……左同…… 《禮》……左同……</p>
<p>「山林收枯槁」句 《莊子》…此山谷之士，非母之人，枯槁赴淵者之所好也。</p>	<p>注 없음.</p>
<p>「伊優無下僚，骯髒謝高位」句 <後漢趙壹傳>…有秦客者爲詩曰…伊優北堂上，骯髒倚門邊。 <選詩>；英俊沉下僚。</p>	<p>伊優， 骯髒見上。 <選詩>……左同。</p>

2. 卷2 <送劉道純>

<p>「五松山下古銅官」句 太白 <銅官山絕句>…我愛銅官樂，千年未擬還。要須回舞袖，拂盡五松山。又<遊五松山詩>自註云…山在南陵銅井西五里。按南陵縣今爲銅陵縣，隸池州，在唐亦嘗爲銅官縣。</p>	<p>太白 <遊五松山詩> 自注云……左同……</p>
<p>「簿領未減一丘繫」句 簿領，見上。《詩》；考繫在荆。道純，當是主銅陵簿。</p>	<p>《文選》<劉公幹雜詩>云…沉迷簿領書。李善曰…簿領，謂文簿而記錄之。《莊子》注曰…領，錄也。《詩》…左同。道純，……左同。</p>

中國刊 17卷本	朝鮮刊 14卷本
<p>「半枕百年夢邯鄲」句 見〈錢薛樂道詩註〉。</p>	<p>見 第1卷〈……………〉。</p>
<p>「追琢秀句酬江上」句 《詩》…追琢其章。秀句，見上。</p>	<p>秀句，見上。</p>
<p>「夢想樓臺落星灣」句 《寰宇記》；落星寺在江州 廬山東。周迴一百五步。高丈許。《圖經》云…昔有星隕水，化爲石，當彭蠡壑中，故名落星灣。</p>	<p>《寰宇記》……落星石…… ……《圖經》……，……，…… ……灣中，故呼……灣。</p>
<p>「子政諸兒喜文史，阿稱聞有筆端」句 子政，謂劉恕道原也。 《外集》有〈過致政屯田劉公隱廬詩〉亦云…憶昔子政在，爲翁數解顏。元祐8年改葬道原。山谷誌之曰…初凝之忿世不容弄官，老於廬山之下，至道原而節愈高。又自以源出歆向，務追配前，今則子政云者，比道原於歆向也。其誌又云…生三男羲仲，和叔，稱，才器皆過人。和叔以文鳴，而稱篤行，不幸相繼死。 《韓詩外傳》…君子避三端，避文士之筆端。</p>	<p>子政，…………… 《外集》第5卷 有〈過致政屯田劉公隱廬詩〉亦云……………左同 ……………山谷誌之曰…………… ……………左同…………… ……………務追配前人，則子政元者，……………其誌又云……………左同。 …………… 《韓詩外傳》…………… ……………左同……………</p>
<p>「知公未能長柱冠」句 〈後漢·逢萌傳〉…王莽殺其子。萌即解冠挂東城門，歸將家浮海。陶弘景…挂冠神武門。</p>	<p>〈後漢·逢萌傳〉…………… ……………左同…………… ……………</p>
<p>3. 卷2 〈次韻晁元忠西歸十首〉 辛 第十首</p>	
<p>「開田望食麥，孝隴無秀色。」句 〈王僧達詩〉…麥隴多秀色，楊園流好音。</p>	<p>注 없음.</p>
<p>「豐凶誰主張」句</p>	<p>見上.</p>
<p>「河清會有時」句</p>	

中國刊 17卷本	朝鮮刊 14卷本
<p>河清，見上。</p>	<p>《左傳》…周詩有之，俟河之清，人壽幾何？註，逸詩也。</p>
<p>「得酒灑智臆」句 《集》中有〈答晁元忠書〉云……(中略)…… 可見在太和作，追韻寫意即此詩十詩仰報，盛意，乃前十詩。</p>	<p>……………左同…………… 可見在太和作，追韻寫意即此詩也。十詩仰報盛意，見〈第3卷〉</p>
<p>4. 卷3 〈過家〉</p>	
<p>題下 注 韻音。</p>	<p>自此以下，皆吉州太和縣所作。有〈寄李公擇詩〉序云……元豐庚申得邑太和。庚申，元豐三年也。〈泊舟大孤山詩〉自注云…庚申十二月，則到官，當是四年春。</p>
<p>「宰木鬱蒼蒼」句 宰木，見上。</p>	<p>《公羊春秋》…秦伯謂蹇叔曰…若爾之年者，宰上之木拱矣。</p>
<p>「去夢無一寸」句 注 韻音。</p>	<p>當是謁告獨歸，不及將母，分寧至太和，水道二百里也。</p>
<p>5. 卷3 〈次韻郭明叔長歌〉</p>	
<p>題下 案〈山谷真蹟〉云…謹次韻上答知縣奉議惠賜長歌，邑子黃庭堅再拜上。其間不同者何如？高陽麗生醉落魄，作都不如。蚶食而蝸跽，蝸跽，作蝸跽。自可老斲輪作自奇老斲輪。公直起，作公且起。黃花零落，作零亂。此帖見藏泉江劉鳴家，亦太和還家時作。</p>	<p>注 韻音。</p>
<p>「騎牛澗壑弄潺湲」句</p>	

中國刊 17卷本	朝鮮刊 14卷本
<p>《楚詞》觀流水之潺湲。〈白樂天詩〉…寒芳蹋翠弄潺湲。</p>	<p>注 없음.</p>
<p>「八十唇紅眼點漆，金鍾舉酒不留殘。」句。 謂劉渙凝之也。詳見〈送劉道純詩〉註。〈晉·杜乂傳〉…眠如點漆。〈庾信詩〉…飲酒那得留殘。</p>	<p>謂劉渙凝之也。詳見〈第二卷〉註。〈晉·杜乂傳〉……………。〈庾信詩〉……………。</p>
<p>「君不見征西徐尚書，爲國捐軀矢石間。」句。 徐禧，字德占，洪州分寧人。與山谷同鄉，死於永樂之禍。已見〈過家〉〈上冢〉詩注。贈吏部尚書，諡忠愍。 《文選》〈曹子建詩〉云…誰言捐軀易，殺身良獨難。</p>	<p>……………左同…………… ……………已見此卷〈過家〉〈上冢〉詩注。……………左同…………… 《文選》〈曹子建詩〉云…………… ……………左同……………。</p>
<p>「龍章鳳姿委秋草」句 嵇康事，見上。〈康·李揆傳〉…龍章鳳姿，土不見用，鸞頭鼠目，子乃求官耶？</p>	<p>〈晉·嵇康傳〉…人以爲龍章鳳姿，天質自然。〈唐·李揆傳〉……………？</p>
<p>「天馬長辭十二閑」句 《周禮》〈校人〉曰…天子十有二閑，馬六種。〈王平甫詩〉…海鷗未擊三千里，天馬須歸十二閑。</p>	<p>《周禮》〈校人〉曰…………… ……………左同……………。</p>
<p>「安用蚓食而蛄蟻」句 《孟子》…夫蚓上食槁壤。蛄，音歇。又音曷。猶蟻也。</p>	<p>《孟子》……………左同……………。</p>
<p>「智略足以解連環」句 《莊子》言志施之辯曰…連環可解也。</p>	<p>《莊子》言惠施之辯曰……………。</p>
<p>「銅章屈宰山水縣」句 銅章，見上。〈退之詩〉…出宰山水縣，讀書松桂林。</p>	<p>漢官儀，縣令秩六百石，銅章墨綬。〈退之詩〉……………左同……………。</p>

이상의 다섯首는 비슷한 간격을 두고 뽑아 본 것인데 이를 통해서

대충 14卷 朝鮮刊本の 注와 17卷 中國刊本の 注의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14卷本の 注가 더 간략한 편이나 간혹 17卷本에 ‘見上’이라고 된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注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7卷本과 次序가 다른 까닭에 17卷本에서는 앞에 나왔던 詩가 14卷本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注가 보이거나 뒤에 나올 경우에는 단순히 ‘見上’이라고 表記하지 않고 ‘見第一卷○○詩’ 또는 ‘見第三卷’・‘見第五卷’式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역시 돋보이는 점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史容의 注와 동일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른 添削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注가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全集》본인 14卷本을 토대로 史容의 17卷本 注를 재편성한 것인듯 한데 이러한 작업일지라도 黃庭堅의 全作品에 대해 깊이 熟知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編注者의 專門的 知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本文에 대한 注는 비록 添削에 그쳤다 해도 題目 아래나 作品의 끝에 史容의 注에 없는 새로운 注가 몇 군데 보이는데 네번째 例인 〈過家〉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하로는 모두 吉州太和縣에서 지은 것이다’라는 式으로 주로 作品의 解題에 해당되는 注이다. 예를 더 들면 第2卷의 앞 부분에는 丈人 謝氏²⁴⁾와의 贈答作品들이 연이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부분의 注에 “이상 師厚와의 贈答詩 凡 18篇은 同時의 作이 아니다. 뒷 사람이 여기에 한데 모아 놓은 것이다. (以上與師厚贈答凡十八篇, 非同時作, 後人類聚於此.”라는 解說을 붙여 놓고 있는 것과 同卷 〈寄題傳欽之草堂〉 및 〈戲答伯充勸莫學書及爲席子澤解嘲〉 題下에 각각 “이 詩는 《秦少游集》에 보인다. 山谷의 말이 아니므로 기록하지 않았다. (此詩見秦少游集, 非山谷語, 故不錄.)”, “이 詩는 前集에 이미 注가 있어, 다시 쓰지 않았다. (此詩見前集已有注, 更不錄)”라는 注를 달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24) 謝景初는 字가 師厚. 그의 年이 黃庭堅의 再娶가 되었으나 첫번째 부인처럼 病患으로 얼마 못가 사망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로 注의 形態面에서 비교해 보았지만 本文이나 注文의 字句만을 비교한다 해도 역시 相異한 점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된다. 14 卷本이 《全集》本인 만큼 本文은 注가 없는 《外集》 14卷과의 비교도 포함하게 되는데 예로서 卷2 〈次韻師厚五月十六日視田悼李彥深〉 詩의 몇 句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I 《外集》卷2	II 《外集詩註》 (14卷之2)	III 《外集詩註》 (17卷之6)
A 句	念惜讀書客	念昔讀書客	念昔讀書客
B 句	此上今已矣	此事今已矣	此事今已矣
C 句	賓筵無老成	賓筵老無成	賓筵無老成

이 詩는 陶淵明의 〈歸去來辭〉 및 〈歸園田居〉 詩의 風格을 본떠서 田園의 興趣를 읊은 것인데, A句의 “惜”은 文脈上 마땅히 “昔”으로 해야 하며, B句 역시 西郊에서 놀았던 일을 가리키므로 “上”가 아닌 “事”이 여야 옳다. C句는 B句의 對句이므로 “今”字를 옆두에 둔다면 그에 대응되는 “老”가 더 적절하므로 14卷本の 本文이 17卷이 비해 조절한 것이 된다. 대조에 쓰인 I은 《四庫全書》에 수록된 明版本이고 III은 楊守敬이 日本에서 얻었다는 (우리나라 高麗刊本과 같은) 宋版本인데, 14卷 《詩集註》本은 字句面에서 明版 《全集》本보다 宋版 《詩集註》本에 더 가

〈次韻師厚答馬著作屢贈詩〉

本 文	注A (17卷本注)	注B (14卷本注)
A) 寒灰幾見溺	〈韓安國傳〉…安國坐法抵罪蒙。獄吏田甲辱安國。甲曰一死灰當不復然乎？申曰…然即溺之。	〈韓安國傳〉…安國坐法抵罪蒙。獄吏田甲辱安國。安國曰……死灰獨不復然乎？甲曰…然即溺之。
B) 桐薪鳴竈間	〈後漢蔡邕傳〉…吳人有燒桐以爨者。邕聞火烈之聲，知其良木。因請而裁爲琴，果有美意，而其尾	〈後漢蔡邕傳〉…… …… ……，果有美音，……

本 文	注 A (17卷本注)	注 B (14卷本注)
	猶焦，故時人名焦尾琴。
C) 劍氣吐吳分	〈晉張華傳〉…吳之未滅也，斗牛之間，常有紫氣。吳平之後，紫氣愈明。華問雷煥，是何祥也？ 煥曰……寶劍之精，上徹於天耳。	〈晉張華傳〉.....華問雷煥，是何祥也？ 煥曰.....
D) 常律心自隱	自隱，謂隱度也。〈漢元帝紀〉自度曲。應劭曰…自隱度在新曲。〈文選·崔子玉座右銘〉云…隱心而後動，謗議庸何傷？ 註云…意，度也。 自隱度作新曲。.....

까우면서도 한편 그것을 넘어서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注文의 字句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인하기로 한다.

A)의 17卷本 注는 “獄吏田甲이 安國을 욕하여 말하기를…” 한 다음 또 “甲이 말하기를…”하고 있으므로 田甲의 말단이 두 번 겹치게 되는데, 14卷本 注에서는 “獄吏 田甲이 安國을 욕하자, 安國이 말하기를…” 式으로 ‘安國’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安國의 말과 田甲의 대답이 호응을 이루게 완성시켜 주고 있다.

B)의 注에서도 “美意”는 文脈上 응당 “美音”이어야 하므로 14卷本の 注가 맞고, C)의 “喚”도 바로 앞의 “雷煥”을 가리키므로 “煥”으로 쓴 14卷本이 정확하다. D)에서도 “自隱度作新曲(스스로 헤아리어 新曲을 지었다)”이라 한 14卷本の 注가 더 타당하다.

이 한 作品의 注만을 두고 보더라도 비록 새로운 注文을 삼입하지는 않았지만 17卷本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뜻이 잘 통하도록 注를 校正하였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殘缺本으로서 두 권밖에 남아 있지 않는 것

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남은 두 권만이라도 黃庭堅의 作品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五. 朝鮮刊《山谷集》本の 特徵

지금까지 살펴 본 《山谷集》의 概況과 여러가지 版本의 比較 등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朝鮮刊《山谷集》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刊行內容面에서 볼 때 두드러지는 점은 《詩集注》本이 朝鮮刊本의 主류를 이루고 있다. 中國刊本의 경우 數種의 《全集》本이 있었고 현저하게 남아 있는 것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刊本은 《山谷老人刀筆》외에는 文章類 作品을 수록한 刊本이 눈에 띄지 않는다. 《全集》本에 注를 단 14卷本 《外集詩註》를 볼 때 文章도 함께 찍낸 《全集》本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것이 적은 이상 대부분이 《詩集注》本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만큼 黃庭堅이 詩人으로서 인식되었던 때문일 것인데 《詩集注》本의 첫머리에 거의 모든 版本이 수록하고 있는 〈黃陳詩集注序〉 題下의 〈任淵序〉와 〈許尹序〉는 黃庭堅이 단독 詩人으로서가 아니라 陳師道와 연결되는 江西詩派의 領袖로서 존중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두번째 樣式面에서 본다면 다양한 刻本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板式으로는 活字・木板・木活字 등이 고루 쓰였는데 한 版本이 한가지 版式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고 대개 여러 종류의 活字가 뒤섞인 補刻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補刻 부분이 있다 해도 한 페이지의 缺損도 없이 全卷이 完整하게 보존된 版本들이 적지 않으므로 原典으로 선택하는 데인 하등의 문제가 없다. 匣郭의 크기는 22.6×17.2, 24.8×15.8, 18.5×12.1, 24.5×15.8, 22.7×17, 25.2×16.2, 23.6×17, 21.8×15.5, 22.3×17.1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 페이지에 10

行 17字, 9行 17字, 9行 19字, 8行 16字 등이 들어가 있는데 10行 17字가 비교적 많으나 1行에 本文은 한 줄, 注文은 두 줄 들어간 것은 모두 같다. 어느 刻本이나 字體가 크고 美麗하므로 現代에 單行本으로 刊行되는 작은 글씨체의 版本에 비해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는 長點이 있다고 하겠다.

세째, 刊行 時期面에서 본다면 朝鮮中期 光海君 무렵에 刊行된 것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미 高麗時代에 馬塚의 跋文이 수록된 귀중한 版本이 刊行된 바 있고, 朝鮮初期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는 版本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은 壬亂前後 또는 光海君朝에 刊行된 것들이다. 壬辰倭亂 때의 圖書의 流出도 적지 않았을 터이니 그 이전의 刻本이 적게 남아 있는 것은 혹 이 流出의 결과가 아닐런지 모르겠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壬亂 後인 光海君朝에 圖書의 復舊作業으로서 出版이 활발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 高麗刊《黃山谷集》이 日本에 流出되었던 것은 틀림 없으며 그 이후 朝鮮刊本에는 高麗刊本에 있던 〈馬塚跋〉이 사라졌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끝으로 版本의 校正面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中國作家의 作品集인 만큼 原本을 충실히 따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간혹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校正을 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14卷本《外集詩註》의 本文・注文을 中國刊本과 비교한 것에서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刊本の 校正이 훨씬 우수함은 자랑스러운 일이다.